

# 광주·전남 내년 수출 600억달러 시대 연다

올보다 6.4% 증가…수출실적 기록 행진

## 자동차·반도체 호조 지속 조선도 회복

내년 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500억 달러 시대를 연 뒤 불과 3년 만에 1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더 증가한 것이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내놓은 '2014년 광주·전남 수출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광주·전남 수출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경제 회복 및 자동차·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세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대비 6.4% 증가한 621.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기 부진으로 올해 2%대에 불과했던 세계 교역 증가율은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힘입어 4% 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광주·전남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중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입 물량도 1%에서 4%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지역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단가 상승 세 확대가 내년에도 지속돼 수출 600억 달러 시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는 세계 IT제품 수요 확대 및 저가 스마트폰 생산 확대로 인한 수출 단가 상승이 내년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역시 글로벌 시장의 점진적인 수요 성장과 미국·중국 수출시장의 완성차 수요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에 수주한 저가 선박의 인도 시점이 몰리면서 다소 부진했던 선박 수출도 내년에는 저가 수주 물량 해소, 해운업 지표

회복으로 소폭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친환경 고효율 선박의 신규 수요 창출 기여로 수출 회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 수출은 일본의 엔진 여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 여타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 품목의 선전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의 호조세 덕분에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584억 달러, 수입은 5.4% 감소한 50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치인 83.4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30.9억 달러를 두 배 이상 넘어선 수치다. 전남의 철강제품 수출이 부진하면서 철강석 등 원자재 수입도 줄어 전체적인 수입액이 줄어든 반면, 광주의 자동차와 반도체의 수출 증가가 두 자리 수 이상을 기록한 덕분이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무역규모는 1085억 달러로 3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수출은 2010년 이후 4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대한조선 벌크선 4척 추가 수주

대한조선이 벌크선 4척을 수주, 2016년 하반기까지 일감을 확보했다.

11일 해남 대한조선에 따르면 대한해운으로부터 최근 벌크선 4척을 추가 수주, 수주 잔량은 석유제품운반선 8척과 벌크선 18척 등 26척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18만 DWT(재화중량톤·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중량) 1척과 20만7000DWT 3척으로 그린타입엔진(연비효율이

높고 유해가스의 배출이 적은 최신식 엔진)이 탑재된다. 대한조선은 지난 달 벌크선 14척(옵션포함)을 수주한 바 있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그동안 케이프사이즈급(18만t급) 벌크선 전문 조선소로 끊임없는 품질향상과 고객 지향 서비스를 앞세워 강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철도노조 파업 대응 24시간 통관팀 가동

### 광주세관 수출입업체 지원

광주본부세관은 11일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수출입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구성하고 9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과업으로 차질 우려가 있는 수입원재료 수급, 수출선적 등의 적기지원을 위해 과업이 끝날 때 까지 수출입업체 특별지원기간을 설

정, 특별통관지원팀을 공휴일은 물론 야간까지 포함한 24시간 가능할 계획이다. 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사전수입신고제도를 활용, 신속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과업과 관련된 수출입업체의 환급 신청건도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세관은 이를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수출입업체·관세사·보세운송업자 등 관련업체와 비상연락 체제도 구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11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재직하면서 전남대와 목포대, 남부대, 조선이공대, 순천체일대 등 5개 대학교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말·야간 학위과정으로 등록금의 70%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30%는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다. 근로자의 경우 최대 15%까지만 부담한다.

계약학과 전문 학사과정은 조선이공대(아이티크 CAD/CAM과), 순천체일대(전기자동화과), 학사 과정(3학년 학위)은 남부대(기계시스템공학과), 목포대(기계해양시스템공학과), 석사(대학원)과정은 전남대(전자컴퓨터공학과)가 지정받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062-360-9145).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대기업 1인당 매출 14% 늘때 중기는 19% 줄어

### 2008~2012년 매출 분석

대기업 그룹은 일자리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물집을 급속히 불려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중견·중소기업들은 정반대로 1인당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기업경영 분석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08~2012년 국내 10대 그룹 속속 대기업의 매출 및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그룹

어졌다.

절대액수 면에서 중견·중소기업의 1인당 매출이 10대 그룹 직원의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기업 규모별 양극화의 간극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보인다.

이는 중견·중소기업들은 고용을 크게 늘렸음에도 매출이 조그마한 반면 10대 그룹의 대기업들은 고용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매출을 물집을 불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풀이 된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77.97 (-15.48)

▼ 코스닥지수 494.78 (-2.94)

▲ 금리(국고채 3년) 3.01% (+0.01)

▼ 원·달러 환율 1052.10원 (-0.10)

**80여가지의 다양한 이탈리안 메뉴**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는 프리미엄 이탈리안 뷔페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68석, 40석, 28석, 16석 룸완비)

Steak 이용요금(별도판매)  
1. 푸크 Steak 8,000원  
2. 텍갈비 Steak 9,000원  
3. 비프 Steak 10,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

유·스퀘어점

**YONAMJA**

### 매콤한 요님자

필라프  
T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글레  
Vongole  
Half ₩10,800

베이컨 까르보나라  
Bacon Carbonara  
Half ₩10,800

크랜베리 디아볼로  
풀로 스테이크  
Cranberry diabolo polo steak  
Half ₩10,800

###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Half ₩10,800

블루베리 덴버포크  
Blueberry Denver pot roast  
Half ₩10,8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

##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예우리 옷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행 옆 뚜레쥬르 골목)  
T. 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에 힘입어 전체 세탁기 시장에서 2011년 8.9% 2012년 9.8%에 이어 올해는 1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성장 시장이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2009년 3kg 벽걸이 드럼세탁기 등을 출시하며 소형 세탁기 시장선점에 나섰다. <사진>

신제품 7kg 드럼세탁기는 대용량 드럼세탁기에 비해 최대 60% 이상 크기가 줄어 오피스텔이나 소형아파트 등 중소형 주거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 6kg 소형 세탁기도 외형 크기가 기존 전자동 세탁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10kg 이하의 소형세탁기 시장은 1인 가구 및 세컨드 세탁기를 판매중이다. <사진>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한국 직장인 1년 유급휴가 10일

### 24개국 근로자 조사…전체 평균 절반 안돼

한국인의 유급 휴가일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짧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11일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세계 24개국 직장인 8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는 1년에 평균 10일 휴가를 낼 수 있다고 답해 조사 국가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국가 평균인 21.6일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휴가도 1년 평균 7일에 불과해 전체 평균 18.7일을 크게 밀돌았다.

반면 프랑스인 응답자는 1년에

주어진 30일의 휴가를 모두 쓴다고 답했으며, 노르웨이에서도 휴가 25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주어진 휴가 18일 가운데 나란히 풀찌를 기록했다.

한국 직장인이 휴가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는 '동료와 휴가 기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에 달했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답변은 27%로 나타났다.

휴가 기간 상사가 업무 공백을 도와주는지에 대해서도 한국인 응답자는 44%만 '그렇다'고 답해 전체 평균인 65%를 밀돌았다.

/연합뉴스

